

# “시민 위한 팽나무 숲·가로수 길 조성되길”

### 광주시도시공사에 팽나무 500그루 기증한 명광사무기 김명수 대표

김명수(68·왼쪽) 명광사무기(주) 대표이사는 10여년 전부터 팽나무를 심고 가꾸었다. 광주시 북구 월출동에 땅을 구입해 농사를 짓던 그는 작황이 좋지 않자 팽나무 묘목을 심기 시작했다. 주말이면 팽나무를 돌보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아내 김금순씨가 함께였다. 고령을 파고, 거름을 주고,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지지대를 받치는 등 정성을 다해 세심히 보살핀 팽나무는 모양새를 갖춰가며 잘 자라갔다.

김 대표가 정성으로 키운 팽나무 500 그루를 최근 광주도시공사에 기증했다. 자식같은 나무를 떠나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시민들을 위한 숲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흔쾌히 기증할 수 있었다. 광주도시공사는 기증식을 개최, 김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고마운 마음을 나눴다.

“시민들이 위로를 받고 힐링할 수 있는 팽나무숲 공원과 가로수길이 만들어진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작은 힘을 보탬 수 있어 뿌듯하네요. 후손들을 위해 도시공사가 숲을 잘 조성해 가꾸어 주면 좋겠습니다. 나무 기증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받았던 많은 도움을 사회에 조금이라도 돌려드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번 기증은 팽나무를 키우던 땅이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개발사업에 수용돼 나무를 처리해야하는 상황에서 시작됐다. 잘 키운 팽나무를 만나기 쉽지 않은 터라 주변에서 나무를 팔라는 제의를 받았고, 처음에는 판매도 고려했었다.

“나무를 좋은 값에 가져가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지지체에 기증할까 하는 생각도 했죠. 그러다 광주도시공사와 인연이 있는 분의 소개로 기증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제가 중앙초등학교와 조대부중을 나온데다 우리 지역에서 이만큼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게 모두 지역민들 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대표는 대구가 1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통해 도심 온도를 낮춘다는 이야기를 듣고 광주도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팽나무가 많이 우거지는 수종이라 세월이 지나면 멋진 숲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번 기증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나누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책 사업에 땅이 수용돼 저처럼 나무를 처분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판매를 하는 것도 좋지만 나무 기증을 통해 함께 광주에 푸른 숲을 만들어



기증 팽나무. 릴레이 기부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1984년부터 관련 사업을 해온 김 대표는 지역 사회가 많은 도움을 주었기에 현재의 위치에 올 수 있었고, 자신 역시 넉넉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했기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지금처럼 이웃과 지역을 위해 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재 한국법무복지보존공단 후원기업회원이며 숯대장애인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전남관광재단, 세계음식관광포럼 유치위원 위촉



### 정관스님·조셉리저우드 셰프 등

전남도와 관광재단이 지난 7일 '2026 UN Tourism 세계음식관광포럼' 유치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맛의 공간 전남'의 세계화에 나섰다.

UN Tourism 세계음식관광포럼은 국제기구인 UN Tourism(구 UNWTO), 스페인BCC(바르스 클리니리 센터)가 주최하며 자국 음식 및 관광의 매력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관련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열리는 세계 최대 미식관광 국제 행사다.

유치위원은 '셰프들의 셰프' 백양사 천진암 정관스님을 비롯해 미쉐린 1스타 조셉리저우드 EVETT 셰프, 한국미식관광협회

김태희 협회장, 스페인 몬드라곤 대학 상임멘토 김현수 대표, 전남대 김재수 교수, 먹고 놀릴 이우석 대표, 푸드스튜디오 정 정희정 대표, 전남도 심우정 관광과장, 신안군 신좌일 섬안전개발국장, 한국관광공사광주전남지사 김희정 팀장 등이 위촉됐다.

전남관광재단은 전세계 셰프들의 스승이며 철학이 담긴 사찰 비건음식으로 '미식의 성지 전남'의 명성을 알리고 있는 백양사 정관 스님과 프랑스 미쉐린 레스토랑에서 입지를 다진 EVETT 미쉐린 1스타 조셉리저우드 셰프를 섭외해 '동·서양의 맛있는 맛남 전남 식탁'을 특별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5월 친환경 농산물로 보성 유기농 녹차 선정

### '청롱다원' 최창돈 유기농 명인

“야산을 개간해 녹차를 친환경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것이 지난 1996년입니다. 이제 제 나이도 80을 넘었고요. 친환경 보성 녹차가 세계가 인정하는 명품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2022년 전남도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된 보성 '청롱다원' 최창돈(80·사진) 유기농 명인. 녹차 친환경 재배 경력만 28년인 그는 2004년 녹차 유기농 인증을 받았으며, 유기농식품 인증 및 국제 유기농인증까지 획득했다. 녹차 완제품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국FDA 식품안전검사에서 제작, 우전, 중작, 대작, 가루녹차 5개 품목이 합작하기도 했다.

최 명인은 자연영, 헤어리베치 등 콩과 식물을 녹차 재배에 이용하는 독특한 농법을 사용하고 있다. 콩과 식물 사재를 통해 토양 비옥도는 자연스럽게 증진돼 차나무에도 양분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독창적인 생물학적 방제를 통해 차나무 스스로 병해충을 이겨낼 자생력을 키우는 자연 순환 농업이다.

한편 전남도는 5월을 대표하는 친환경 농산물로 자연 순환 농업으로 생산하는 보성 '유기농 녹차'를 선정했다.

녹차의 수도로 알려진 보성은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어 차를 재배하기에 천혜의 환경을 갖춘 곳이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유기농 명인의 독창적인 유기농법이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개발과 농가 소



득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김항집 광주대교수, 국토교통부 민간위원 위촉

광주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김항집(사진) 교수가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김 교수는 도시계획·설계 분야를 맡아 앞으로 2년간 활동한다.

김 교수는 “인구 고령화와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도시의 혁신적인 재생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



토부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 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전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TV프로그램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번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두근두근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감무쌍 용수정(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20 피도 눈물도 없이(재)	30 930 MBC 뉴스 55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	55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10	00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인간극장 스페셜		
11	30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40 팔도밥상 스페셜(재)	00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재)	30 찾아가는 꾸러기교실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30 스튜디오 K 스페셜(재)	00 12 MBC 뉴스 25 수사반장 1958(재)	00 SBS 12뉴스 20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열린TV 시청자 세상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피도 눈물도 없이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2	00 KBS 뉴스 10 팔도밥상 스페셜 30 방과 후 초능력			
3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이슈 픽 썸과 함께 스페셜(재)	00 KBS 뉴스타임 15 영동발달 공순이와 친구들 8 30 TV 유치원(재)	55 기본 좋은 날	
4	00 사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특집 로코노미 혁명(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지도그래피 스페셜	00 거명술을 지켜라! 버디프렌즈 15 다이노 파워즈 3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10 보통의 존재	00 SBS 오뉴스 50 한국사 대모험
6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05 남도 탐구생활	20 KBC뉴스와이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00 피도 눈물도 없이	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0 용감무쌍 용수정 40 MBC 뉴스데스크	15 도시락 스페셜 35 시사터치! 따따부따 50 SBS 8 뉴스
8	30 수지맞은 우리	30 월드 24 55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00 실화탐사대	00 덩치 서바이벌-먹피빠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KBS 뉴스라인W	15 김이나의 비인칭시점	00 구해줘! 홈즈	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30 이슈 픽 썸과 함께 스페셜	15 아이 러브 스포츠 40 영화가 좋다(재)	45 문화콘서트 난장	50 네모세모(재)
12	00 KBS 중계식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상심! 고향별곡(재)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레인보우 버블랜드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8:10 EBS 뉴스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8:3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재)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건축탐구 - 집(재)	19:20 고향한국
07:00 허풍선이 미술쇼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50 PD로그
07:15 빅 블루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07:30 하프와 친구들	14:30 EBS 평생학교 2교시	〈파미르와 텐산 3,500km를 가다 -텐산의 봄, 노루즈〉
07:45 꼬마버스 타요	15:15 클래스 e	21:35 한국기행
08:00 당당당 유치원	15:55 블록스	〈그리운 봄날 4부 엄마 집 가는 길〉
08:20 최고다! 호기심 딱지	16:10 당당당 유치원(재)	21:55 귀하심 몸
08:50 고고다!는 해양구조대	16:30 페파 피그	22:45 다큐멘터리K
09:05 골짜기와 처음 수학	16:40 마사와 곰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20 인간이 되자!	16:50 도레미 프렌즈 쇼츠	24:00 EBS 비즈니스 리뷰
09:40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재)	16:55 꼬마버스 타요(재)	24:15 지식채널e
10:30 한국기행(재)	17:10 최고다! 호기심 딱지(재)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9일(음 4월 2일 癸酉)

<p><b>子</b></p> <p>36년생 상호적인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겠다. 48년생 중동적인 조처라면 곧 후회하게 될 것임을 알라. 60년생 상대의 기대 심리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72년생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라. 84년생 약화된 부분을 보완하고 진용을 정비해야 할 성국에 놓여 있다. 96년생 합심하여야 병폐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1, 94</p>	<p><b>午</b></p> <p>42년생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한국이다. 54년생 변화의 조짐이 예상되니 완벽하게 대처해야겠다. 66년생 불가능하다고 여겨온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단계에 와 있다. 78년생 결심양면의 상호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었다. 90년생 물허벅지 뱀한 사실이 드러난다. 02년생 과감히 내려 놓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2, 96</p>
<p><b>丑</b></p> <p>37년생 터무니없는 소문에는 귀기울일 필요 없다. 49년생 예전에 접해 보지 못했던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겠다. 61년생 폐단을 제거한 후에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73년생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묘안이 절실하다. 85년생 조심하지 않으면 큰코를 쏠 위험이다. 97년생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3, 72</p>	<p><b>未</b></p> <p>43년생 가변적인 한국까지 예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5년생 쉽지 않은 일을 할 것이니 맹목적으로 낙관하지 말고 조심성 있게 다루자. 67년생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그치게 된다. 79년생 초반에 두리하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워진다. 91년생 망설이다가 놓치지 않도록 하라. 03년생 기대는 거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26, 74</p>
<p><b>寅</b></p> <p>38년생 현재의 경제성에 구애 받지 말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설정하자. 50년생 잡다한 손익에 얽매이지 말고 진퇴를 분명히 해야 할 때이다. 62년생 오리무중이었던 것이 서서히 명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74년생 현대대로 유지하도록 하자. 86년생 장애물이 보이니 조심하자. 98년생 진행 속도를 높여도 무방하다. 행운의 숫자 : 06, 60</p>	<p><b>申</b></p> <p>44년생 하나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낫다. 56년생 시간의 압박을 잘 헤아릴 행이 차질이 없다. 68년생 당면 과제를 소홀히 한다면 힘들어질 것이다. 80년생 고수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92년생 꼭 준수해야 할 과제를 놓치지 마라. 04년생 열린 마음이 발전을 이끌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7, 95</p>
<p><b>卯</b></p> <p>39년생 책무를 다하고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도리이다. 51년생 특수한 요령에 따르지 않으면 험난해질 것이다. 63년생 난해했던 부분이 시원스럽게 풀리는 열쇠를 갖게 된다. 75년생 그 무엇보다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87년생 운로는 좋으나 언행만 주의하면 된다. 99년생 끝나는 마당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8, 84</p>	<p><b>酉</b></p> <p>45년생 가득이 잡히면서 쉽게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57년생 통합하려 하지 말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69년생 흥한 것이 오히려 복으로 변할 소지가 많으니 낙심할 필요 없다. 81년생 체제와 만남의 순기능이 두드러진다. 93년생 승리의 여신은 노력을 사랑하느니라. 05년생 새로운 일에는 끼어들지 마라. 행운의 숫자 : 49, 59</p>
<p><b>辰</b></p> <p>40년생 상황 조정되거나 훨씬 늘어나는 판시세로다. 52년생 정확하게 선별해 낼 수 있는 혜안이 절실한 때이다. 64년생 속시원한 것 보다 원만한 것이 가장 무난하리라. 76년생 백번의 구상보다 단 한 번의 실행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 88년생 참신한 변화를 모색해보는 것도 괜찮다. 00년생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 두자. 행운의 숫자 : 10, 89</p>	<p><b>戌</b></p> <p>46년생 다린 마당에서 마무리가 시원찮을까 두려우니 빈틈이 없지 꼼꼼히 살펴볼 일이다. 58년생 운기가 힘차게 솟구쳐 오르는 형상이다. 70년생 만전을 기해야만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82년생 고수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94년생 벗어나지 않으면 후회하리라. 06년생 동기 부여가 절실한 마당이다. 행운의 숫자 : 18, 75</p>
<p><b>巳</b></p> <p>41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정진하면 기필코 이루어라. 53년생 조짐이 심상찮으니 미리 대비해 둘 필요가 있다. 65년생 근본적인 처방을 하지 않는다면 불협화음이 생긴다. 77년생 낙관적인 정황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 89년생 기본적인 것이 미비한 상태라면 성과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01년생 별개의 개념으로 인식하라. 행운의 숫자 : 19, 65</p>	<p><b>亥</b></p> <p>35년생 사태는 불시에 발생하는 법이니 긴장을 늦추지 마라. 47년생 모든 일을 차지고 황급히 서둘러야 할 때다. 59년생 이룬보다는 경험을 우선해야 할 때이다. 71년생 애로 사항이 보이나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83년생 특징을 잘 파악한다면 행국을 주도 할 수 있게 된다. 95년생 노력한다면 해결점을 찾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9, 78</p>